

2차전지, 2020년까지 15조원 투자

지경부, 세계시장 점유율 50% 목표 ... 석사·박사 1000명 양성 계획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기반이 될 2차전지 산업을 세계 1위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15조원을 투자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7월13일 열리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2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2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가 2010년 123억달러에서 2020년 779억달러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하고 에너지 저장용 등 중대형 2차전지의 제조와 소재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형 2차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산·학·연 공동으로 10월까지 전기자동차용 및 에너지저장용 전지기술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4조~5조원의 R&D투자를 추진키로 했다.

또 리튬이온전지 이후 일반금속(음극)과 공기 중의 산소(양극)를 사용하는 차세대 2차전지 기술개발(배터리 2020 프로젝트)을 교과부-지경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차전지 핵심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글로벌 소재기업 10개 이상을 육성하고, 2차전지 소재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한 자원외교도 강화하기로 했다.

2차전지 생산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관련분야의 석사·박사급 인력 1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된 2차전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버스, 이륜차 등 수송기계용 2차전지를 공용버스와 우정사업본부 집배용 트럭·오토바이 등에 시범 장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용 2차전지 실증사업으로 그린 100만호, 제주도 스마트 그리드, 새만금 풍력단지 등을 활용해 선순환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키로 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2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이 50%로 확대돼 세계 1위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평균 국산화율이 75% 수준에 이르고 2차전지 소재산업은 본격적인 수출시대를 열 전망이다.

선진국 대비 현재 30% 수준인 2차전지 기초원천기술은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또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는 100km에서 250km로 1.5배 증가하고, 가격은 130만원/kWh에서 20만원/kWh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특히, 에너지저장 수명은 6년에서 20년으로 3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2>